

일본어 청·탁음(清·濁音) 지각(知覺)에 있어서의 오용 경향과 지도법에 대하여

강 연 화*

(e-mail : hwa1809@dju.kr)

< 목 차 >

- | | |
|----------------------|--------------------|
| 1. 서론 | 33. 실험방법 |
| 2. 선행연구 | 34. VT법의 지도 내용 |
| 2.1. 청·탁음(清·濁音) | 4. 결과 |
| 2.2. VT법 | 4.1. 듣기 조사1 |
| 2.3. 지도법 | 4.2. 듣기 조사2 |
| 3. 실험 | 4.3. 듣기 조사1과 2의 비교 |
| 3.1. 조사협력자 | 5. 고찰 |
| 3.2. 음성자료(듣기조사1,2)작성 | 6. 결론 |

キーワード：韓国人日本語学習者(Korean elementary-intermediate level learner), 清音(clear sound), 濁音(voiced sound), perception(知覺), フェルボトナル・メソッド(Verbo-Tonal Method)

1. 서론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발음 오용에 대한 경향과 문제점은 도다(戸田1998), 가시마(鹿島2002), 민광준(2015) 등 많은 연구에 의해 지적된바 있다.

이처럼 한국인 학습자가 습득하기 곤란한 발음 항목으로 특수 음소인 축음(促音), 장음(長音), 발음(撥音), 청·탁음(清·濁音)의 변별(弁別), 요음의 직음화, た행의 「つ」 발음, ザ행의 발음, 악센트 등이 있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음성 습득에 관한 연구는 위에 제시한 발음 항목에 대한 학습자의 오용 분석 및 경향, 일·한 대조 연구, 음성 지도법의 이

* 대전대학교 조교수, 언어교육학.

론과 지도 방법의 소개에 한정된 연구가 많다. 반면, 음성지도법을 이용한 지도와 연습을 통해 학습자의 지각과 생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실제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성 지도법을 제안한 연구는 현저히 적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습득에 어려움을 느끼는 일본어의 청·탁음(淸·濁音)과 음성지도법에 주목해 고찰을 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청·탁음(淸·濁音) 지각(知覺)에 있어서의 오용 경향을 분석하고,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음성지도법의 한 분야인 VT법(Verbo-Tonal Method)의 창작 와라베(わらべ)노래 리듬을 이용한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여 지도법의 장·단점과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이로써 VT법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효과적인 음성지도법을 제안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성 교재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2.1. 청·탁음(淸·濁音)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청·탁음에 관한 연구로 우메다(梅田1985)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는 일본어의 청음을 한국어의 농음(濃音)으로, 탁음을 평음(平音)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나카토(中東1998)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게 있어서 일본어의 무성음(無聲音)과 유성음(有聲音)의 식별은 어중(語中)보다 어두(語頭)에 많고, 후쿠오카(福岡2007)도 어두에 유성과열음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학습자의 경우 일본어 파열음 지각에 있어서 어중(語中) 보다 어두(語頭)에서 유성(有聲)과 무성의(無聲)혼동이 크다고 설명했다.

마쓰자키·가와노(松崎·河野1998)는 무성·유성(無聲·有聲)을 정확히 발음하기 위해서는 청취 레벨에서 유성음과 무성음의 변별 능력이 중요하고 자신이 발음한 음(音)이 유성음인지 무성음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형재(2000)는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단어와 문장을 이용하여 시간 차이를 두고 발음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습 시간의 증가와 유성과열음의 습득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중복·민광준(2014)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 3명을 대상으로 3년의 기간 동안 발음 항목 전체에 대한 습득의 정도와 학습기간의 상관관계를 밝힌 결과, 어두의 유성과열음을 무성과열음으로, 어중의 무성과열음을 유성과열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2.2. VT법

언조청각론(言調聽覺論, Verbo-Tonal System)은 인간의 뇌가 음성언어를 어떻게 듣고 생성하는지, 청각의 기능과 그 원리 또 거기에 존재하는 규칙성은 무엇인가 등에 관해 기술한 언어 이론이다.

1950년대에 자그레브대학(University of Zagreb)의 페다르 구베리나(Guberina, P.)에 의해 제창되었고, 청각·언어 장애자 및 외국어 학습자의 발음 지도·교정 보청기 장치 등에 응용된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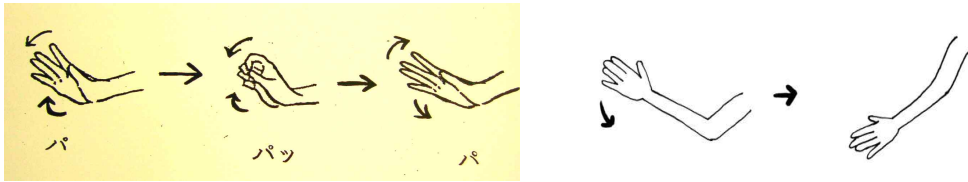
VTS는 두 개의 분야로 나뉘어져 하나는 청각 언어 장애자와 외국어 학습자의 발음 지도 및 교정에 응용하는 VT법(Verbo-Tonal Method)과 외국어 교수법에 응용하는 전체 구조 시청각 교수법(Structuro-Global Audio-Visual Methodology:SGAV)으로 분류된다.

VT법에 의한 음성 지도에는 ①신체 리듬 운동²⁾ ②진동기³⁾ ③와라베(わらべ) 노래 리듬, ④스바그(SUVAG: Systeme Universel d'Audition Guberina)기에 의한 청취 지도 등이 있다.

1) 木村政康(2002) 『聽覺・言語障害教育および外国語教育のためのVTS入門』 p.17. 1-10행 필자 번역.

2) 신체 리듬 운동(Body Movements)은 언어의 생리적 발생에 따라 조직된 것이다. 음성언어를 제대로 듣고, 발음 수 있도록 음성특징과 신체움직임의 요소를 연관 지어 창출된 이 운동은 음성 리듬과 발음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육 방법이다. 『VTS入門』 pp.36-37. 필자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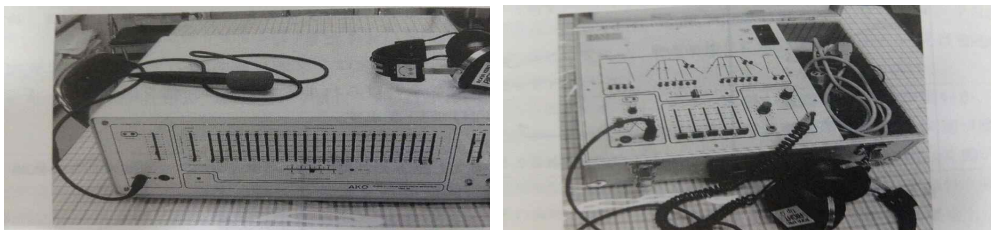
3) 진동기는 음성은 진동으로도 인식된다는 생각에 따라 음성을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하여 청취 생성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진동자(振動子) 및 진동 장치이다.



<신체리듬운동>



<진동기>



<SUVAG기기>⁴⁾

본 연구에서 사용할 와라베(わらべ)노래 리듬(Nursery Rhyme Stimulation)⁵⁾은 특정의 언어로 구성되어지는 짧은 문장의 집합체로 언어의 리듬 인토네이션 악센트, 모음, 자음 등을 최적의 상태에서 습득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교재의 총칭으로 복합성(언어적 요소, 음악적 요소, 유희적 요소), 언어성, 음악성, 유희성, 목적성, 긴장성에 원리를 두고 있다

4) 스바그(SUVAG)는 언조청각론(言調聴覺論)에 근거하여 고안, 제작된 음향기기로 외국어 학습 및 청각장애자 발음교육에 이용된다.

5) 와라베(わらべ) 노래 리듬에는 전승 와라베(わらべ) 노래, 변형 와라베(わらべ) 노래, 창작 동요가 있다. 창작 동요 리듬은 전승 와라베(わらべ) 노래 리듬과 변형 와라베(わらべ) 노래 리듬의 단점을 보완해 만든 것이다. 선행 연구 부분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래의 용어로 기술했다.

2.3. 지도법

VT법에 의한 지도와 연습의 효과에 관련된 연구로 가와구치(川口1987)는 중국어 모어화자, 한국어 모어 화자, 영어 모어화자인 상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VT법의 신체 리듬 운동을 이용해 지도를 실시한 결과, 악센트와 인토네이션이 개선되었고, 특수 박의 지도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가와구치·요코미조(川口·横溝2005)는 어두의 탁음이 나오지 않는 한국인 학습자는 속삭이듯 힘없는 목소리로 한숨을 쉬면서 「あ~だめだ」(“아~ 안돼.”)라고 말하게 하면 무기음(無氣音)의 긴장(緊張)이 이완(弛緩)되어 탁음(濁音)에 가까운 발음을 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강연화(2011)은 VT법의 진동기와 신체 리듬 운동을 이용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게 있어서 오용이 많은 축음 지도를 실시한 결과 학습자의 축음 부분의 지속시간이 일본어 모어화자에 근접해짐에 따라 발음이 개선된 사실을 밝혔다.

강연화(2014)는 VT법의 신체리듬운동과 창작 동요 리듬을 이용한 지도로 듣기 조사를 실시하여 학습자의 장음 변별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증명했다.

위와 같이 청음과 탁음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학습 시간과 습득 정도의 상관관계, 청·탁음 변별에 있어서의 학습자의 오용 경향에 중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VT법에 의한 음성지도에 있어서도 축음(促音), 장음(長音), 발음(撥音) 등과 같은 특수박(特殊拍)의 지도법과 효과를 밝힌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청·탁음(淸·濁音) 변별(弁別)에 있어서의 오용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VT법의 창작 와라베(わらべ)노래 리듬(이하 창작 동요로 표기)을 이용하여 청·탁음(淸·濁音)의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중단(縱斷)연구(2015년 9월~11월:10회)를 통해 지도법의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3. 실험

본 조사는 일본어 초·중급 학습자 30명을 대상으로 2종류의 듣기 테스트 듣기조사1(2015년 9월)과, 듣기조사2(2015년 11월)를 실시했다.

3.1. 조사협력자

대전 소재의 대학에서 일본어를 수강하고 있는 초·중급 학습자 30명⁶⁾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VT법을 이용해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그룹 15명(이하 A군으로 표기),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 15명(이하 B군으로 표기)으로 분류⁷⁾했다.

3.2. 음성 자료 (듣기 조사 1, 2) 작성

어두(語頭)와 어중(語中)에 탁음을 포함하거나 청음만으로 이루어진 유의미어(有意味語) 80개를⁸⁾ 선정하여 랜덤으로 배열하고, 듣기 조사 원고를 작성한 후, 일본어 모어화자(동경 출신)에게 의뢰해 음성 자료를 녹음했다.

단어 선정에 있어서 학습자가 수업 과정에서 학습한 단어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실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초·중급 레벨에서 다루지 않는 단어들을 선정했고, 듣기 조사2는 듣기 조사1과 단어의 순서를 다르게 배열하였다. 듣기조사는 다음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듣기조사에 사용한 단어 예】

1	こうか	2	かいとう	3	たいきん	4	とく	5	したい
6	ごうか	7	かいどう	8	だいきん	9	どく	10	しだい

3.3. 실험 방법

3.3.1 듣기 조사1

듣기 조사1은 초·중급 학습자 30명(A군:15명, B군: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VT법을 이용해 지도와 연습을 실시할 그룹 15명(A군),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을 대조군 15명(B군)을 대상으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일본어 음성 자료를 들려준 후 들리는 대로 받아쓰게 했다. 듣기 조사 1에 소요된 시간은 각 그룹별로 10분정도이다.

- 6) 학습자의 레벨은 일본어능력시험 기준에 따라 초급(일본어능력시험4·5급 레벨의 학습자)과 중급(일본어능력시험2~3급 레벨의 학습자)으로 나누었다.
- 7) 조사는 초·중급 학습자 7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같은 레벨의 학습자라도 개인차가 있음을 감안해 다수의 자료를 수집한 후, 각 그룹별(A군:VT법, B군:대조군)로 15명(청·탁음 지각 오용 수가 30점대 5명, 20점대 5명, 10점대 5명)을 선정해 균등하게 배정했다.
- 8) 듣기조사에 사용한 단어의 어두(語頭)와 어중(語中)의 비율은 각 50%, 청음과 탁음의 비율은 각 50%로 균등하게 배정했다.

3.3.2 듣기 조사2

듣기 조사2는 A군과 B군 모두 듣기조사1의 10주후에 시행했다. A군의 경우 VT법의 창작 동요를 이용한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고, B군은 지도와 연습 없이 실시했다9).

듣기 조사2는 듣기 조사 1과 동일하고 단어의 순서만 다른 음성 자료를 들려주고 들리는 대로 받아쓰게 했다. 듣기 조사2에 소요된 시간은 각 그룹별로 약10분 정도이다.

3.4. VT법의 지도 내용

지도와 연습은 필자가 작성한 창작 동요10)를 슬라이드를 통해 보여주고 박자와 리듬에 주의하면서 필자가 읽은 후 학습자가 따라서 반복하고 연습하는 형태로 실시했다.

지도와 연습은 약70분(주1회×약7분×10회)이 소요되었다.

【창작 동요를 이용한 연습 내용】

- だいがく(大学) : たいがく(退学) 등의 단어를 제시하여 청·탁음의 유무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짐을 설명하고 중요성을 인식 시킨다.
- タタタ : タダダ, タンタンタン : ダンダンダン
カカカ : ガガガ, カンカンカン : ガンガンガン
2박, 3박, 4박으로 구성된 무의미어(無意味語) 패턴을 보여주고 필자와 학습자가 같이 읽으면서 발음의 차이를 느끼도록 한다.
- 아래에 제시한 【청·탁음의 창작 동요】를 학습자에게 슬라이드로 보여주고 박자와 리듬에 주의하면서 필자가 시범으로 읽는다. (2회)
- 필자가 읽은 후 학습자가 복창하면서 연습한다. (3회)
- 학습자가 각자 연습한다. (2분)
- 마지막으로 필자와 학습자가 다 같이 연습한다. (1회~2회)

9)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B군의 경우는 수업 진행 중에 교재 내용에서 청·탁음이 나타나는 단어가 제시되면 구분해서 정확하게 읽도록 주의를 주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필자가 시범을 보인 후 학습자가 따라 읽게 했다.

10) 창작 동요는 木村政康·小坏博子(2002) 『聴覚・言語障害教育および外国語教育のためのVTS入門』 pp.43-58을 참고하여 ①지도해야 하는 음성의 청취, 생성에 적합한 리듬을 선택 ②기본적으로 4박의 어구(語句)를 선택 ③간격을 두어 리듬 그룹을 확인 ④각 행의 최종 문절에 목표단어 배치 등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청·탁음의 창작 동요】 11)

○ きりぎり	まわるよ	きりきりと	○ こくこく	つごうか	こくこくと
ぎりぎり	ついたよ	ぎりぎり	こくこく	のん	ごくごくと
○ かんかん	おこって	かんかんと	○ とんとん	とんとん	とんとんと
がんがん	やげざげ	がんがんがん	だれかが	たたくよ	とんとんと
○ からは	まっくろ	かあかあかあ	○ どんどん	どんどん	どんどんと
かちょうは	いねむり	ぐうぐうぐう	たいこを	ならして	どんどんと

4. 결과

한국인 일본어 초·중급 학습자의 청·탁음 지각에 있어서 나타나는 오용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¹²⁾.

4.1. 듣기 조사1

4.1.1 청·탁음 오용 결과

<表1> 전체오용결과

(단위:개)

지 도 법	오 답		합계(비율)
	청음→탁음(탁음화)	탁음→청음(청음화)	
VT법 (A군)	152	221	373 (31%)
대조군 (B군)	137	217	354 (29%)
합 계	289	438	727 (60%)

*각 피험자군의 총 응답 수: 80개×15인(학습자)=1,200개

11) 청·탁음의 창작 동요는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제시된 단어나 표현 등을 이용해 다양하게 작성하여 활용했다.

12) 본 조사에서는 청·탁음(淸·濁音)의 위치 즉, 청음과 탁음이 단어의 어두(語頭)에 있는지 어중(語中)에 있는지를 정확히 듣고 썼을 경우 정답으로 처리하고 그 외의 오용은 오답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といつ를 どいつ로 쓴 경우(어두 청음 오용)는 오답으로 처리하고 といつ를 といつ로 쓴 경우(장음 탈락 오용)는 정답으로 처리했다.

철저한 사전 지시로 공란이 많지는 않았지만, といつ란 단어가 공란 일 경우는 오답 처리와 동시에 어두 청음 오용으로 간주했다.

<表1>은 한국인 일본어 초·중급 학습자의 듣기 조사1의 전체 오용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군은 총 1,200개의 단어 중 31%에 해당하는 373개, B군은 29%에 해당하는 354개의 단어에서 지각 오용이 나타났다.

청음을 탁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 A군 152개, B군 137개로 나타났고, 탁음을 청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 A군 221개, B군 217개로 A·B군 모두 탁음을 청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4.1.2 청·탁음 위치별 결과

<表2>청·탁음 위치별 오용 결과 (단위:개)

지도법	오 답				합계
	어두청음	어두탁음	어중청음	어중탁음	
VT법 (A군)	68	111	84	110	373
대조군 (B군)	67	107	70	110	354
합계	135	218	154	220	727

*각 피험자군의 총 응답 수: 80개×15인(학습자)=1,200개

<表2>는 한국인 일본어 초·중급 학습자의 듣기조사 1의 청·탁음 위치별 오용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군의 경우, 어두의 청음보다 어두의 탁음 지각에 오용이 많고(어두청음68 < 어두탁음111), 어중의 청음보다 어중의 탁음에 오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어중청음84 < 어중탁음110).

B군의 경우도 A군과 마찬가지로 어두의 청음보다 어두의 탁음 지각에 오용이 많고(어두청음67 < 어두탁음107), 어중의 청음보다 어중의 탁음에 오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어중청음70 < 어중탁음110).

위와 같이 두 그룹 모두 어두의 청음(135개)보다는 어두의 탁음(218개)에, 어중의 청음(154개)보다 어중의 탁음(220개)에 오용이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어중의 탁음에 오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듣기 조사2

듣기 조사2는 실험군(A군)을 대상으로 VT법을 이용한 반복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여 지도 전·후의 변화를 분석하고,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B군)과의 비교를 통해 지도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했다.

4.2.1 청·탁음 오용 결과

<表3>전체 오용 결과 (단위:개)

지 도 법	오 답		합계(비율)
	청음→탁음(탁음화)	탁음→청음(청음화)	
VT법 (A군)	44	50	94 (7%)
대조군 (B군)	132	145	277 (23%)
합 계	176	195	371 (30%)

*각 피험자군의 총 응답 수: 80개×15인(학습자)=1,200개

<表3>은 한국인 일본어 초·중급 학습자의 듣기 조사2의 전체 오용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군은 총 1,200개의 단어 중 7%에 해당하는 94개, B군은 23%에 해당하는 277개의 단어에서 지각 오용이 나타났다.

청음을 탁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 A군 44개, B군 132개로 나타났고, 탁음을 청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 A군 50개, B군 145개로 탁음을 청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4.2.2 청·탁음 위치별 결과

<表4>청·탁음 위치별 오용 결과 (단위:개)

지도법	오 답				합계
	어두청음	어두탁음	어중청음	어중탁음	
VT법 (A군)	24	21	20	29	94
대조군 (B군)	57	61	75	84	277
합계	81	82	95	113	371

*각 피험자군의 총 응답 수: 80개×15인(학습자)=1,200개

<表4>는 한국인 일본어 초·중급 학습자의 듣기 조사2의 청·탁음 위치별 오용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군의 경우, 어두의 탁음보다 어두의 청음 지각에 오용이 많았으나(어두청음24 > 어두탁음21) 그 차이는 근소하다. 또한, 어중의 청음보다 어중의 탁음에 오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어중청음20 < 어중탁음29).

B군의 경우, 어두의 청음보다 어두의 탁음 지각에 오용이 많고(어두청음57 < 어두탁음61), 어중의 청음보다 어중의 탁음에 오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어중청음75 < 어중탁음84).

위와 같이 어두의 청음(81개)보다 어두의 탁음(82개)에, 어중의 청음(95개)보다는 어중의 탁음(113개) 지각에 오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어중의 탁음에 오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듣기 조사1과 2 (지도 전·후)의 비교

4.3.1 전체 오용 및 지도법의 효과

VT법을 이용한 지도 전·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유의성 검정은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였다.

<表5> 지도법 실행 전·후 오용 평균 비교 검정 결과

지도법	듣기 조사		t값(p)
	1차 (N, Mean)	2차 (N, Mean)	
VT법 (A군)	373 (24.87)	94 (6.27)	8.79***
대조군 (B군)	354 (23.60)	277 (18.47)	2.21*

*p<.05 **p<.01 ***p<.001

<表5>는 VT법을 이용해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A군과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B군의 지도 전·후의 결과를 비교한 통계적인 유의성 검정 결과이다.

A군의 경우, 듣기 조사1의 총 오용 수 373개(개인 평균 오용 수:24.87개)→듣기조사2의 94(6.27)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정 결과 t값이 8.79,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나 A군 1차와, 2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VT법을 이용한 지도와 연습에 의하여 오용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B군의 경우, 듣기 조사 1의 354(23.60)→듣기 조사 2의 277(18.47)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정 결과 t값이 2.21, p값이 유의 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나 B군 1차와, 2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B군도 오용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B군은 A군 보다 오용 감소의 폭이 크지 않고, 평균 5~6개 정도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VT법을 이용한 지도와 연습을 통해 학습자의 오용이 감소되었고, t검정에 의한 유의성 검증에 의해 음성 지도와 연습의 효과는 확인되었다.

4.3.2 청·탁음 오용 비교

두 그룹(A군과 B군)의 지도 전후의 청·탁음 오용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유의성 검정은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였다.

<表6> 지도법 실행 전후 청·탁음 오용 평균 비교 결과

지도법	청음			탁음		
	1차 (N, Mean)	2차 (N, Mean)	t값(p)	1차 (N, Mean)	2차 (N, Mean)	t값(p)
VT법 (A군)	152 (10.13)	44 (2.93)	8.09**	221 (14.73)	50 (3.33)	7.00***
대조군 (B군)	137 (9.13)	132 (8.80)	.23	217 (14.47)	145 (9.67)	3.04**

*p<.05 **p<.01 ***p<.001

<表6>은 A군과 B군의 지도 전·후의 청·탁음 오용 수를 비교한 통계적인 유의성 검정 결과이다.

A군의 경우, 듣기조사1의 청음 총 오용 수는 152개, 개인당 평균 오용 수는 10.13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VT법을 이용한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후의 듣기 조사 2에서는 총 오용 수가 44개, 개인당 평균 오용 수는 2.93개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고 t값이 8.09,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나 A군의 듣기 조사 1과 2의 청음 오용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A군의 듣기조사1의 탁음 총 오용 수는 221개 이었으며, 개인당 평균 오용 수는 14.73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듣기 조사2에서는 총 오용 수가 50개, 개인당 평균 오용 수는 3.33개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고 t값이 7.00,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나 A군의 듣기 조사 1과2의 탁음 오용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B군의 경우 듣기조사1의 청음 총 오용 수는 137개 이었으며, 개인당 평균 오용 수는 9.13개로 나타났고 듣기조사 2에서는 총 오용 수가 132개, 개인당 평균 오용 수는 8.80개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t값이 0.23,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나 B군의 듣기 조사1과 2의 청음 오용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의 듣기조사1의 탁음 총 오용 수는 217개 이었으며, 개인당 평균 오용 수는 14.47개로 나타났다. 듣기조사2의 경우 총 오용의 수가 145개, 개인당 평균 오용 수는 9.67개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으며, t값이 3.04,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나 B군의 듣기 조사1과 2의 탁음 오용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VT법을 이용한 지도와 연습을 통해 학습자의 청·탁음 오용이 감소되었고, t검정에 의한 유의성 검증에 의해 음성 지도와 연습의 효과는 확인되었다.

<表7> 청·탁음에 따른 오용 평균 비교 결과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p)
듣기조사1 청·탁음	청음	30	9.63	4.02	-3.87***
	탁음	30	14.60	5.77	
듣기조사2 청·탁음	청음	30	5.87	3.81	-.63
	탁음	30	6.50	4.02	

*p<.05 **p<.01 ***p<.001

<表7>은 듣기조사1과 2의 청·탁음에 따른 오용 평균 비교 결과이다. 먼저 듣기조사1의 청음 평균은 9.63(4.02), 탁음은 14.60(5.77)으로 탁음의 오용이 청

음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t값이 -3.87이며,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적게 나타나 듣기조사1의 청·탁음에 따른 오용의 수는 차이가 있다고 확인 되었다.

듣기조사2의 청·탁음에 따른 오용 평균 비교 결과는 먼저 청음의 평균은 5.87(3.81)이며, 탁음은 6.50(4.02)으로 탁음의 오용이 청음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t값이 -0.63이며,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나 듣기조사2의 청·탁음에 따른 오용의 수는 차이가 없다고 확인 되었다.

4.3.3 청·탁음 위치별 오용 결과

<表8>듣기조사 1과 2의 청·탁음 위치별 오용 결과 (단위:개)

지도법	조 사	오 답				합계
		어두청음	어두탁음	어중청음	어중탁음	
VT법 (A군)	듣기조사1	68	111	84	110	373
	듣기조사2	24	21	20	29	94
오용 감소		44	90	64	81	279
대조군 (B군)	듣기조사1	67	107	70	110	354
	듣기조사2	57	61	75	84	277
오용 감소		10	46	+5	26	87

*각 피험자군의 총 응답 수: 80개×15인(학습자)=1,200개

<表8>은 청·탁음 위치에 따른 오용 수를 나타낸 것이다. A군의 경우 듣기조사1은 어두 탁음이 111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어두 청음이 68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듣기 조사2는 어중탁음이 29개로 가장 많았으며, 어중 청음이 20개로 가장 적었다. 또한, 오용 감소는 어두 탁음이 90개로 가장 많았으며, 어두 청음이 44개로 가장 적게 감소하였다.

B군의 경우 듣기 조사 1은 어중 탁음이 110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어두 청음이 67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듣기 조사2는 어중탁음이 84개로 가장 많았으며, 어두 청음이 57개로 가장 적었다. 또한, 오용 감소는 어두 탁음이 46개로 가장 많았으며, 어중 청음은 듣기 조사 1보다 2에서 오용 수가 5개 증가했다.

<表9>청·탁음 위치에 따른 오용 평균 비교 검정 결과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p)	Scheffe
듣기조사1의 청·탁음 위치	어두 청음(a)	60	2.25	1.50	10.91***	ac<bd
	어두 탁음(b)	60	3.63	2.04		
	어중 청음(c)	60	2.57	1.50		
	어중 탁음(d)	60	3.67	1.73		
듣기조사2의 청·탁음 위치	어두 청음(a)	60	1.35	1.36	1.67	-
	어두 탁음(b)	60	1.37	1.37		
	어중 청음(c)	60	1.58	1.50		
	어중 탁음(d)	60	1.88	1.72		

*p<.05 **p<.01 ***p<.001

<表9>는 청·탁음의 위치에 따른 오용 정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사용했다. 본 분석은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듣기 조사1(A군, B군)과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듣기조사2의(A군, B군)의 오용수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행했다.

먼저 듣기조사1의 청·탁음의 위치별 오용 평균차이를 확인한 결과 어중 탁음의 평균이 3.67으로 가장 높았고, 어두 청음이 2.25으로 가장 낮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검정한 결과 F값이 10.91이고, 유의확률 값이 유의수준 보다 작아 청·탁음 위치에 따라 오용 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a와c, b와d 두 집단으로 나뉘어 평균의 차이가 확인 되었다. 따라서 어두, 어중 둘 다 청음 보다 탁음에서 오용이 많은 걸로 나타났다.

듣기조사2의 청·탁음의 위치별 오용 평균차이를 확인한 결과 어중 탁음의 평균이 1.88으로 가장 높았고, 어두 청음이 1.35으로 가장 낮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검정한 결과 F값이 1.67이고, 유의확률 값이 유의수준 보다 크게 나타나 청·탁음 위치에 따라 오용 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5. 고찰

5.1 듣기 조사1

A군과 B군 학습자는 총 2400개의 단어 중 약 30%(727개)에 해당하는 단어에서 지각 오용이 나타났고, 탁음을 청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 현저하게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경숙(2013)는 청음을 탁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 탁음을 청음으로 지각하는 오용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지만, 본 조사에서는 탁음을 청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듣기 조사에 사용한 단어의 어두(語頭)와 어중(語中)의 비율 및 청음(淸音)과 탁음(濁音)의 비율, 학습자 개인의 일본어 음성에 관한 지식의 차이에서 온 결과라고 추측된다.

김조웅·오자키(金·尾崎1999)도 한국어의 경우 [k]발음과 [g]발음이 별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k]발음을 초성으로 하는 か행음과 [g]발음을 초성으로 하는 가행음의 구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이런 결과는 청음과 탁음의 구별이 없는 한국어의 영향 즉, 모어간섭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에게 있어서 청·탁음의 변별은 용이(容易)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청·탁음의 위치에 따른 오용에 있어서는 어두의 청음보다 어두의 탁음 지각에 오용이 많고(어두청음 < 어두탁음), 어중의 청음보다 어중의 탁음에 오용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어중청음 < 어중탁음).

김조웅·오자키(1999)가 한국어는 단어 초성에 놓인 [ㄱ]을 [k]로 발음하는 반면 유성음 사이에 놓인 [ㄱ]을 [g]로 발음하는 습관이 있고 그러한 습관이 무의식중에 우리 몸에 배어 있어, 단어 첫머리의 [가·기·구·계·고]는 [か·き·く·け·こ]로 발음되고 어중(語中)이나 어말(語末)의 [가·기·구·계·고]는 [が·ぎ·ぐ·げ·ご]로 발음하게 된다고 논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한국어의 특성이 학습자가 일본어를 습득할 때 어두의 탁음과 어중의 탁음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진중복·민광준(2014)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어두의 유성과열음을 무성과열음으로, 어중의 무성과열음을 유성과열음으로 발음하는 오용이 많다고 지적했는데 본 조사의 결과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2 듣기 조사2

듣기 조사2는 음성 지도법을 이용하여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후, 지도 전후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지도법의 효과를 증명하고자 실시했다.

A군과 B군 학습자는 총 단어의 약 15%에 해당하는 371개의 단어에서 지각 오용이 나타났고, 탁음을 청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VT법으로 지도를 실시한 A군의 경우(듣기 조사1의 373개→듣기 조사2의 94개), 대조군인 B군의 경우(듣기 조사1의 354개→듣기 조사2의 277개)로 오용 수가 감소했다.

이상과 같이 일본어의 청·탁음 지각에 있어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은 듣기 조사1에 비해서 VT법을 이용한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후 오용이 감소한 사실에서 지도법의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형재(2000)는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발음 조사 결과, 학습 시간의 증가와 유성과열음의 습득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본 조사에서는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B군의 경우도 오용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학습 효과라고 판단된다. 즉, 일본어 수업에서 다루는 단어 중 청·탁음에 관련된 어휘는 여러 차례 나오고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청·탁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의함으로써 변별 능력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탁음의 위치에 따른 오용에 있어서 지도를 실시한 A군의 경우, 듣기 조사1과의 결과와는 다르게 어두의 탁음보다 어두의 청음 지각에 오용수가 많았지만(어두청음24 > 어두탁음21)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어중의 경우는 청음보다 탁음에 오용이 많았다(어중청음20 < 어중탁음29).

B군의 경우는 듣기 조사1과 마찬가지로 어두의 청음보다 어두의 탁음 지각에 오용이 많고(어두청음57 < 어두탁음61), 어중의 경우 청음보다 탁음에 오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어중청음75 < 어중탁음84).

위와 같은 결과는 VT법을 실시한 A군의 경우 학습자가 청·탁음의 음성적 차이를 인식함과 동시에 학습자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만든 창작 동요를 사용한 지도와 연습의 효과라고 생각된다.

B군의 경우, 학습 시간의 경과에 따른 효과는 있었지만 학습자가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상태로 일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5.3 지도법의 효과

VT법을 이용한 지도와 연습의 결과, A군의 지각 오용 수의 감소와 t검정에 의한 유의성 검증에 의해 음성지도와 연습의 효과는 확실하게 밝혀졌다. 또한, 음성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의 경우도 오용 수는 감소했지만 지도 전후의 성과가 지도를 실시한 그룹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조사에서 VT법의 창작 동요를 이용한 지도와 연습 후에 학습자의 청·탁음 오용이 현저히 감소한 것은 지도와 연습의 효과로 학습자의 변별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단어의 반복 연습이 아닌 창작 동요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특징 즉, 복합성(언어적 요소, 음악적 요소, 유희적 요소), 언어성, 음악성, 유희성, 목적성, 긴장성이 발음 교정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다나카·고아쿠쓰(田中·小塚 1988)는 창작 동요를 이용한 지도 시(時), 각 음절의 특징에 맞는 리듬을 사용하여 무의미 음절의 리드미컬한 반복을 통해 호흡, 발성, 발음의 기초를 다지고 리듬 속에서 반복하면 단어를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고 일본어의 리듬 패턴을 몸에 익힐 수 있다고 논했다.

일본어 학습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휘나 문법에 비해서 발음은 습득하기 어려운 항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성어나 의태어, 교재 내용과 관련된 단어들을 선정해 음악적 요소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유희적 요소를 가미한 창작동요를 작성했다. 창작 동요를 이용한 지도와 연습을 통해 학습자의 발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발음 수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효과가 극대화 되었다고 생각된다.

기무라(木村2000)도 동요(와라베 노래 리듬)는 동형(同型)의 리듬, 언어, 음절, 음소(音素)의 반복이 많고, 유희(遊戱)의 요소를 동반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운 특징이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를 입증했다고 본다.

6. 결론

본 연구는 일본어의 청·탁음 지각에 있어서의 오용 경향을 분석하고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VT법을 소개함과 동시에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보다 실

천적인 음성 지도법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인 학습자의 청·탁음 지각에 있어서의 오용 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도법을 고안해 지도와 연습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학습자의 오용 수가 현저히 감소했고 지도법의 효과도 검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음성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합한 발음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잘못된 발음을 교정하고 단시간(短時間)이라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교사는 일본어 음성 수업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교육 현장에서 단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발음 지도와 연습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학습자가 자연스러운 리듬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한 발음 교정에 그치지 않고 어휘나 문법 항목과 연계하여 관련 음성 항목을 도입함으로써 발음 교정과 동시에 어휘 및 문법 습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지도를 통하여 보다 다양하고 학습자에게 적합한 음성 지도법을 개발함과 동시에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음성 교재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연화(2014) 「Verbo-Tonal Method를 이용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발음 지도」 『일본문화학보』 제63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5-23.
- 김조웅·尾崎達治(1999) 『동경 발음 일주일에 끝내기』 (주)시사일본어사, pp.34-41.
- 민광준(2015) 「일본어 음성교육의 실천과 교사의 역할」 『일본어교육연구』 제31집, 한국일어교육학회, pp.63-79.
- 이형재(2000)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발음 연구 ; 유성·무성 파열음의 발음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9, 한국일본어문학회, pp.255-284.
- 진중복·민광준(2014) 「한국인 학습자의 일본어 발음 습득 중단 분석」 『교사와 교육』 33(1), 건국대학교 교육연구소, pp.13-33.
- 李敬淑(2013) 「韓国語母語話者による日本語発音の聞き間違いと中間言語の音韻習得」 『日本文化学報』 第59輯, 韓国日本文化学会, pp.65-79.
- 梅田博之(1985) 「韓國人に対する日本語教育と日本人に対する朝鮮語教育」 『日本語教育』 第55号, 日本語教育学会, pp.48-58.
- 鹿島央(2002) 『日本語教育をめざす人のための基礎から学ぶ音声学』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 pp.34-41.
- 姜蓮華(2011)「振動器と身体リズム運動による発音指導－特殊音素の促音を中心に－」『日本文化学報』第51輯, 韓国日本文化学会, pp.39-55.
- 川口義一(1987)「発音指導の一方法」『講座日本語教育』第23分冊, 早稲田大学語学教育研究所, pp.48-63.
- 川口義一・横溝紳一郎(2005)『成長する教師のための日本語教育ガイドブック』ひつじ書房, p.18.
- 木村政康(1998a)「わらべうたリズムを活用した長音指導教材」『言語研究』第88号, 拓殖大学言語文化研究所, pp.211-262.
- (1998b)「わらべうたリズムを活用した撥音の指導法」『日本語紀要』第10号, 拓殖大学留学生別科, pp.17-28.
- (2001)「音声教育法－VT法の理論を応用して－」『言語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拓殖大学言語文化研究所, pp.45-64.
- 小坏博子・木村正康・川口義一・安富雄平(2002)『聴覚・言語障害教育および外国語教育のためのVTS入門』特定非営利活動法人グベリナ記念ヴェルボトナル普及協会, pp.17-80.
- 田中容子・小坏博子(1988)「わらべうたリズム－聴覚言語障害児(者)への応用－」Sophia Linguistica 25, Linguisti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pp.55-66.
- 戸田貴子(1998)「日本語学習者による促音・長音・撥音の知覚範疇化」『文芸言語研究』言語篇第33号, 筑波大学文芸・言語学系, pp.65-82.
- 中東靖恵(1998)「韓国語母語話者の英語音声と日本語音声一聞き取り・発音調査の結果から」『音声研究』第2巻第1号, 日本音声学会, pp.72-82.
- 松崎寛・河野俊之(1998)『よくわかる音声』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pp.166-184.
- 福岡昌子(2007)「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日本語破裂音の習得研究：知覚と生成のメカニズム」『三重大学国際交流センター紀要』2, 三重大学国際交流センター, pp.13-22.

논문 투고 일자 : 2016. 06. 30.
논문 심사 일자 : 2016. 07. 25.
게재 확정 일자 : 2016. 07. 27.

<要旨>

日本語の清・濁音の知覚における誤用の傾向と指導法について

姜蓮華

本研究は、韓国人日本語学習者が日本語の習得において困難を感じる音声項目の一つである清・濁音の知覚に関して考察した。まず、学習者の青・濁音の知覚における誤用の傾向を分析すると同時にVT法 (Verbo-Tonal Method) のわらべ歌リズムを用いた継続的な指導と練習の効果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調査を行った。調査は、韓国人日本語学習者初級と中級を対象に聞き取り調査1と2に分けて実施した。その結果、韓国人日本語学習者は青・濁音の知覚に誤用が多く、特に濁音の知覚に誤用が多いことが分かった。清音と濁音の位置による誤用は、語頭と語中に大きく関係しないことが分かった。聞き取り調査2では、VT法を利用して指導と練習を行ったグループの方が指導と練習を行っていないグループに比べて、清・濁音の誤用が大幅に減少したことにより、VT法を用いた指導が効果的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Study on Misuse Tendency and Instructional Method of Perception(知覚) of Japanese Clear·Voiced sound(清·濁音)

Kang, Yeon-Hwa

This research involves the perception of clear and voiced sounds, one issue Korean Japanese learners face in learning Japanese. Above all, this research analyzed the problems learners faced with clear and voiced sound perception. Elementary and Intermediate Japanese learners are separated into 2 groups. Using the practices of warabe and Verbo-Tonal Method,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record the learning patterns of each learner. As a result, Korean learners had many problems with voiced sound perception. The misuse depending on the syllable position is more common in voiced sound, particularly in the middle of words. In listening investigation too, instruction using Verbo-Tonal Method was determined to be effective, as the misuse of clear and voiced sound noticeably decreased compared to the group without the use of Verbo-Tonal Method.